

‘부활’ 쇼트트랙 최민정, 최종 목표 베이징 올림픽

부상·체력 저하 겹쳐 네차레 월드컵 금메달 無 4대륙선수권서 전관왕 등극하며 부진 털어내

부상 여파를 딛고 부활을 선언한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22·성남시청)이 최종 목표는 ‘2022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밝혔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민정은 취재진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부상이 잦아 준비가 잘된 상태에서 대회에 나선 적이 많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지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끝난 4대륙 선수권대회에

서 쇼트트랙 여자부에 걸린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다. 500m, 1500m, 1000m, 3000m 슈퍼 파이널, 3000m 계주에서 모두 시상대 정상에 올랐고 총점 136점을 따내 종합우승까지 차지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비유럽 국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 신설됐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곤 한국, 중국, 캐나다 등이 강국으로 꼽히지만 캐나다와 중국을 대표하는 주축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

지 않았다. 세계 무대를 누비는 ‘강적’들이 출전하지 않은 대회지만 전관왕 등극은 최민정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의 부진을 털어냈기 때문이다. 최민정은 “5관왕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신설된 대회에서 초대 우승자가 돼 기분이 좋다. 이번 시즌 들어 부진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다. 그러나 2018년 말 발목 부상 여파와 체력 저하가 겹쳐 부진을 겪었고 이번 시즌 네 차례 ISU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단 한 개의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최민정은 “부상을 당하고 회복 속도가 더더서 어려움을 겪었다. 부상을 입은 뒤 회복하는 과정을 처음 겪어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몸 상태는 70%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는 서울에서 열려 여는 때보다 대회 의미가 특별하다. 최민정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홈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대표팀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다. 최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베이징 올림픽이다. 중장기 목표를 묻자 그는 “현재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 이후 목표에 대해서는 베이징 대회가 끝난 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FA ‘빅4’ 포함해도 300억대 급격히 축소



(왼쪽부터) 전준우,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

‘빅4’를 포함해 300억원대다.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새해 들어 잠잠하던 FA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6일 안치홍이 2+2년 최대 56억원에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만 6명이 계약을 체결했

다. 8일에는 전준우가 4년 총액 34억원에 롯데 잔류를 결정했고, 14일에는 김선빈이 원 소속구단 KIA 타이거즈와 4년 총액 40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오지환(LG 트윈스 4년 40억원)을 포함한 ‘빅4’의 행선지가 모두 정해졌

다. 총 19명이 뛰쳐나온 2020 FA 시장. 그중 12명이 계약을 마쳐 이제 남은 선수는 7명뿐이다. 스포링캠프 시작(2월1일)까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아 각 구단과 선수들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FA 시장은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총액 490억원으로 2014년부터 이어오던 5년 연속 500억원 이상의 규

안치홍 롯데 이적 시작 2020년에만 6명 계약 체결 7명 남아...“특급 선수 아니면 지출 안하는 분위기”

모가 무너졌다. ‘빅3’ 양의지(125억원·NC 다이노스 이적), 최정(106억원, 이재원(69억원·이상 SK 와이번스 잔류)을 제외하면 ‘11명-19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사실상 300억원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김선빈과 윤규진(1+1년 최대 5억원 한화 잔류)이 동시에 계약하면서 FA 계약 총액은 320억원이 됐다. 남은 7명(오재원, 오주원, 김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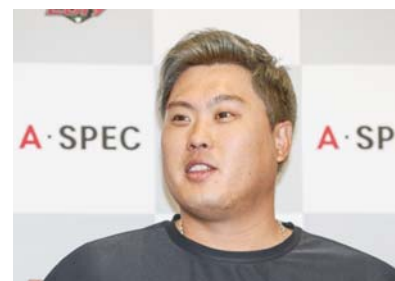
균, 김태균, 이성열, 고효준, 손승락)의 계약을 더해 400억원을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400억원을 넘긴다고 해도 지난해보다 크게 후퇴한 규모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초기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접근법도 등장했다. 오지환은 FA 선수로는 최초로 원 소속구단 LG에 협상을 백지 위임했고, 안치홍과 롯데가 ‘아웃 아웃’을 계약에 포함시킨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여러모로 거품이 걷히고 있는 모양새다. 구단들은 FA 시장과 과

도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다. 구단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입지가 좁아진 FA 선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존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양의지, 최정과 같은 ‘특급’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도 시장이 축소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야구계 고위 관계자는 “프로야구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구단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특급 FA 선수가 아니면 큰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캐나다 언론 “류현진-로어크, 신뢰할 수 있는 토론토 원투펀치”



캐나다 지역 언론이 류현진과 테너 로어크로 이뤄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원투펀치를 “신뢰할 수 있는 듀오”로 꼽았다.

현지 매체 TSN은 15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개막 선발 로스터를 예상하면서 류현진-로어크-맷 슈메이커-체이스 앤더슨-라이언 보루키가 5인 투수 선발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류현진과 로어크를 지목한 뒤 “2017년 이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발진 듀오를 형성할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류현진과 로어크 모두 FA 자격을 행사한 뒤 이번 비시즌 토론토와 계약을 맺었다. 류현진은 4년간 8000만 달러에 계약하며 에이스 역할을 부여 받았다. 우원인 로어

크는 2년간 2400만 달러를 받는다. 이 매체는 “류현진은 건강하다면 200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그는 앞서 150~190이닝을 던질 수 있다고 증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로어크는 평균자책점 4.00 정도가 기대되는데 특히 내구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3선발로 전망한 슈메이커에 대해서는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면서도 어깨 등 부상 부위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앤더슨에게는 지난 시즌 기록한 평균자책점 4.21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선발 자리는 경쟁 체제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좌완투수 보루키의 왼쪽 팔꿈치 상태를 변수로 꼽은 뒤 3명의 우완투수 트랜트 손튼, 제이콥 웨그스팩, 아마구치 □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튼과 웨그스팩은 팀 내 우완 기대주이고 아마구치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포스팅을 통해 이번에 토론토 유니폼을 입었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